**자신이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밥 존스**

 ****

 † 자신이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밥 존스)

**용서받지 못할 죄**

밥 존스: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진성원: 네, 오늘의 설교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밥 존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참 좋습니다..

진성원: 변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양심(consciousness)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이해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렇지만, 밥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끗한 양심(Pure Consciousness)’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시금 더 잘 이해하고 깊이 깨닫게 되셨

습니다.

밥 존스: 변 목사님께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이후에 결국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sealed consciousness) 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 그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교회에서 한번 구원받았던 사람도 다시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갈수 있다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에 대한 성경구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이 성경 말씀은 단지 씨앗(seed)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붙드시고 그 씨앗의 말씀에서 싹이 트여지고,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부화(hatch) 하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 시키시며 붙드셔야 합니다.

변 목사님께서 가르쳐 오신, 이 말씀에 대한 견해는

제가 전해오던 견해와 동일한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그가 아주 깊은 죄 가운데에 빠져서,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의 죄를 책망하지 않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용서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저는, 대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하여 성령님으로부터의 찔림을 여전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여전이 성령님으로부터의 찔림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아직까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벤자민 오: 그것은 아주 좋은 확증 중에 하나네요.

밥 존스: 제 말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변승우: ‘양심에 화인 맞는 것(Sealed Consciousness)’과, ‘성령을 방훼하는 죄 (Blaspheming

the Holy Spirit)가 같은 것입니까?

두 개가 다른 종류와 같은 느껴지는 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밥 존스: 사실은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떠나서, “저는 더 이상 성령님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성령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훼방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변승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밥 존스: 저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죄에 대한 찔림이 없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한 마디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은 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찔림을 주셔서,

그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는 것은,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를 대속할 희생제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상의 값진 피는 있을 수 없으며

죽음에 이르는 죄는 다름아닌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짓밟었기 때문입니다.

히1026. 이는 만약 우리가 진리(알레데이아:진리,참되다,진실성,사실)의 인식(에피그노씨스:

인식,완전 식별,인정,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가 고의로(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들에

대한 더 이상의 희생제물은 남아 있지 않으며,

히1027. 대신에 대적들을 삼켜버리는 심판과① 불타는 의분(義憤)을② 확실하고 무섭게

바라보는 것이 남아있음이라.

히1028. 모세의 법을 얕보았던 그가 둘 또는 셋의 목격자들(증인들, 증언들) 아래서

긍휼(오이크테이로:동정,자비,연민) 없이 죽었느니라.

히1029.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서 짓밟았고①, 그가 그것으로써 성화(따로 떼어

성별함)되었던 혈약의 피를 거룩치 않은 것으로 여겼으며②, 또 은혜(호의)의 성령께

무례(모욕)를 행했던③ 그가 얼마나 훨씬 더 비참한 처벌에 합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너희는 상상하느냐?